

남양군도로 가는 바다 위에서 허우적 거렸듯이

손관임

나는 1924년 음력 10월 12일 경남 하동에서 다섯 형제 중 외동딸로 태어났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고, 아래로 남자동생이 세명 있었다. 우리집은 본래 하동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과수원을 하기 위해 진주 공래동으로 이사를 왔다. 아버지는 진주에서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경영하였다. 우리집은 호기집이기는 해도 자당채에 땅이 두칸, 마루가 달린 문채에 땅이 세칸, 그리고 아래채라 하는 곡간이 하나 있는 꽤 넓은 집으로 그렇게 잘살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부녀 매고와 고장하고 보진 않았다. 땅도 많아서, 가을이면 소작인들이 농사지을 것을 집으로 가져오곤 하였다. 인부들이 다 농출해 갔지만...

한가지 집안과 성격이라면, 어머니가 목에 후이 나는 병(병명은 잘 모르나)으로 내게 무뎠었다는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에 갈때 잠도 잘 못 주무시는 어머니의 병 간호를 하면서 집안일도 도와야 했기 때문에, 공래국민학교도 3학년까지 밖에 못다 갔다. 그때는 거기 안 끌려갈려고 병신한배라도 자질을 보냈지만, 우리집은 어머니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

문제의 말년

학교로 집은 떠난 것은 내가 만수로 몇 점군살아던 1941년이다. 걱정은 잘 안되지만, 히로시마에서 핵을 맞을 때 누군가 나무상자에 온 미상은 사워서 우리 집의 나이가 그랬다. 불가솔이 아니면 겨울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40대쯤 되는 보리(인부 여자가 전으로 찾아와), 아버지에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봐주라고 하였다. 머리를 돌리고 하얀 부피스를 입은 단정한 여자였는데, 이런

여자를 대접하기 아플 뿐 아니라 또 어떤 애를 이렇게 널리 보낼 수 있느냐시며 우리한테도 하였다. 여자는 삼시 나가더니, 우리 전후모를 쓴 일꾼인 남자를 데리고 왔다. 두번뒤로 수질이 난 오십쯤 되어보이는 남자였는데, 이쪽은 모자(한 명)만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내가 부산에서 핵을 탄 때도 보았고, 학과도 보드나오, 뉴기타아를 친친할 때도 여어 본 보았다.

그가 오더니 내게 친한 나라 브라고 하더니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아버지가 한 직장이 되어서 파라 나오시면서 이더를 데리고 가느냐고 하니, 우리가 어느 언덕 아래에 버려가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붙여버렸다. 지금도 아버지 따라 다니다 보면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가 제일 마지막이었더라, 사기라 같은 데로 가니까 다쳐갈 끝마은 여자들이 있었다. 한 원영을 되었을까? 내 기억으로 등대에서 파주같이도 여녀들을 살고 온 것 같았다. 조그만 활피기를 부치고 산면서 어머니가 술상자를 했던 술잔이, 학교도 못가고 집에서 농사같은 거들면 불금에도 안 갔었다. 우리 마을에는 결혼은 못했으나 정신이상인 친구도 있었는데 그 해는 모리고 왔다가 되돌아보았다. 그 때 나는 점점듯히 학원피를 누른 세라복 차림에 머리를 손수레로 묶고 있었다.

이런의 들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사모미와 무지마 상을 파라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기억은 분명하지 않지만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서 온 여자들이 한 열차로 모여 있었는데, 그루 열 다섯에서 열 여섯쯤쯤 되어보였다. 우리

다 있던 우리 일행들이 10명인가 내렸다. 부두에 내려 김철사를 하고 소독약을 뒤집어 썼다. 그리고 우리는 줄을 서서 승마대에 알간 도장을 받은 다음, 원원짜리 한겨례를 받아 쥐고 나왔다.

유원, 그리고 거중

기사를 타고 부산을 거쳐 진주로 갔다. 대구에서 친구들이 원부 내려고, 나머지 일행은 삼랑진에서 하루 밤을 같이 지내고 이튿날 헤어졌다. 당시 우리는 내내 일본말만 썼기 때문에, 회가 한 안뜰아가서 말하는 안아 들어고 말을 잘 할 줄 몰랐다. 진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뽕장사 할머니에게 병어리 지남을 해서 뽕을 사 먹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났다.

그다음엔 내기 스물 전살되던 해(1946년)에 진주로 돌아온 것이다. 집에서는 형제 셋뿐이고, 집안 어른들이고 내기 죽은 줄만 알았다고 한다. 죽었다고 짐도 없이 했다고 한다. 이모들이 가서 집을 치면 어떤 데서는 내가 죽었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살았는데 배고워서 울고 다닌다고 했었다. 그러던 내가 살아 왔으니 오죽 하였는가? 아버지는 내가 떠난 뒤로 화병이 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어느 겨울에 돌아가셨다. 조카와 동생들 둘은 결혼하고, 하나는 군대에 가고 있었다. 이모님 부부가 나를 맞아 주었다.

나는 지칠진 생각이 없었으나 이모님들의 상화로 품대를 해서 삼천포에 있는 어느 부락집에 직업을 갔다. 그때 내 나이 스물 둘이었는데, 남편과는 세살 차이였고 그후 아이는 삼남매를 낳았다. 결혼생활은 14년 했지만, 뜻은 날이던 내가 몸이 아파서 미쳐가고 양심에 가려져 되어서 사는 것 같이 살아보진 못했다. 남편의 구박은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정동여사의 생활

저는 여섯에 집을 나와서 그 길로 서울에 와 가지고 20-30년 동안 혼자서 안팎 분간 했다. 내아리, 친호들, 파원을 간질하면서 시장에서 가꾸미를 놓고 상사도 하고 팔팔에 밥을 지어 내리기도 하고, 미란하는 공장, 카시미를 손타는 공장, 동조원 공장, 팔팔의 공장 등에서 일을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있으면 곳은 조카가 하는 세탁소였다. 나는 지하실 일을 얻어 있으면서, 세탁소 사람을 뭇고 태우고 임대 관리해주었다.

그후 나는 몸이 자주 괴롭히고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회로 가서 정동장독을 하고 양제빈 신청을 했다. 동사무소와 교회의 도움으로 살다가 그해들의 그후로 파천양로원에 들어갔다. 이 양로원에서 나는 자살함에 걸린 사실을 알았고, 1992년 겨울 강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강남병원에서 단 3개월만에 퇴원해서 양로원에 왔다가 1993년 6월에 남동과 같이로 왔다. 저들도 나는 조금만 움직이면 반듯이 기립고 마누라 주시는 것 같이 아파서 밤으로 나가기도 못한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언젠가 남편이 한번 찾아왔었지만, 그냥 돌려 보내고 가족들과는 연락도 없고 살았다. 큰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작은 아들은 거울서 사는 데 언어도 인하고 작은 중남에 있는데 가보지도 않았다. 한이 하나 있어도 정곡소의 지리 이런 소리 못한다.

남편은 나와 정식으로 이혼은 않았지만, 얼마 후에 쌍둥이 언더라고 다시 조처를 얻었다. 쌍둥이들이 우리 애들 키우노라고 고성을 많이 했다. 쌍둥이들은 남편이 죽고 한남동에 학식 한 배 만났다. 저들을 키운 원은 더 많고 쌍둥이들과 외형제 처럼 지냈다. 그러는 내가 아플 때도 억척까지로 많이 도와주었다.

일본정부와 한일정부에게 원하는 바.

일본 정부가 우리들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일본정부는 전쟁을 규명하고 양해를 애상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증언을 하노라면 속이 뒤집히고, 성질이 난다.

한국 정부는 우리 생환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로 하여금 식전환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정말 억울하고 한많은 세월을 살았지. 이금부터라도 조금은 편하게 살고 싶다.